‘못믿을’ 대학 자체평가 공개

불리한건 빼고 유리한건 부풀려…학생·학부모 되레 혼선

“솔직하게 평가한 대학만 바보된 꼴”

22일 대학알리미사이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된 ‘대학 자체평가’가 객관성없는 지표와 부풀리기로 공신력이 떨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운영의 중요 지표를 스스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자율성 보장과 함께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평가항목·기준·방법 등을 자체 결정해 평가 내용을 2년에 1회 이상 공개하는 제도로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 대상은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 254개 대학이다.

그러나 평가 내용 전반을 대학이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방식에 따라 상당수 대학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만을 평가하고, 불리한 항목은 누락시켜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알리미사이트 ‘대학경쟁력 알림’란에 공개한 대학 경쟁력 8개 지표(충원율·교원확보율·취업률·교원 논문실적·중도탈락률 등) 중 자신에게 불리한 3~4개 항목을 누락시켜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를 부풀리기까지 했다.

더욱이 대학마다 평가 항목이 50개에서 100개 정도에 달하며 일부는 200개가 넘는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항목에 따른 가중치(배점) 등이 상이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공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상당수 대학들이 항목별 평가는 공개했으나 총점 평가를 하지 않아 평가 자료로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대학알리미의 광주·전남지역 대학 자체평가 공개 점수는 ▲가 대학 85.5점 ▲나 대학 83.7점 ▲다 대학 71.6점 ▲라 대학 80.8점 ▲마 대학 94.2점 ▲바 대학 87.9점 ▲사 대학 70.1점 등이다. 타지역은 연세대 83.2점, 경북대 82.9점, 부산대 74.1점, 충북대 82점 등이었다.

서울대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항목별 평가 내용을 올렸으며, 대학평가를 총점으로 환산할 경우 자체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총점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대학에서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씩 준비에 매달리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개로 정직하게 평가한 대학만 바보가 된 꼴이다. 유리한 항목만 평가한 대학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좋을 수 밖에 없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면서 “교과부가 대학경쟁력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대학 자체평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숭어야 반갑다 22일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그물에 걸린 어른 팔뚝만한 숭어를 끌어올리고 있다. 숭어 1㎏ 출하가격은 7천~8천 원선이다.

/무안=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정광학원 막나가나

‘채용 논란’ 빚은 교사 3~4명 재채용 방침 빈축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인사비리 관련자 해임요구를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정광학원이 당시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사 상당수를 재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과 정광학원 등에 따르면 이 학원은 최근 두 차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교사 13명 중 8명을 재채용 하기로 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제외된 5명은 시교육청의 학급 감축 제재에 따라 줄게 된 교사수다.

이사회는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며 최근 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쳤던 이사장이 물러나고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주재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약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순위조작 등으로 문제가 된 3~4명이 올해에도 재채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학원은 공채 형식을 빌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체 교원인사위원회만 열어 재채용 형식을 취하는 한편 인사위원 구성도 교과별 안배, 평교사 참여 등이 배제된 채 주요 보직부장 교사로만 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학원은 지난해 16명의 교사(정교사 6명 포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6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관련 학교장 해임 등 중징계를 법인 측에 요청했으나 정직으로 감경하는 등 사실상 거부해 학급감축, 시설개선비 지원 중단 등 행·재정적 제재를 받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채용도 반드시 공고 절차 등을 밟아 선발해야 한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징계를 미이행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 정광고 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장이 교육청 징계처분을 거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징계수용과 신규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 꼭두각시로 전락한 이사회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암 가정집 공기총탄 ‘화들짝’

유리창 뚫고 들어와…인명피해는 없어

영암의 한 외딴 집 거실에서 누군가 고의로 쏜 것으로 보이는 공기총 탄환 한 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오후 5시20분께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에 사는 송모(55)씨는 철제 조립식으로 지어진 자신의 집 거실 바닥에 지름 5㎜의 공기총 탄환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송씨의 집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환이 가로 1m, 세로 1m 크기의 부엌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거실 벽면에 걸린 액자를 관통한 뒤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외딴 곳에 위치한 송씨의 집은 이웃 주민의 집과 40~50m 떨어져 있으며 송씨가 사는 마을은 수렵금지구역으로 해군 모 부대 정문 인근이다.

영암경찰은 송씨의 마을이 수렵금지구역인 점과 총알이 부엌 창문을 정확히 관통한 점으로 미뤄 조준사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공기총 소유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투병 70대 투신 자살

생활고와 병마(病魔), 외로움에 시달리던 70대 노인이 투신 자살했다.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9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J아파트 104동에 사는 이모(70)씨가 이 아파트 화단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7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수년 전 부인과 사별한 이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딸의 도움으로 콩팥암 수술을 받은 뒤 혼자 투병생활을 해 왔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 H수련원 회원 3명 구속

살인미수 자작극 꾸미려 허위진술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철 부장검사)는 22일 엽기행각으로 파문을 빚은 H수련원 회원이 연루된 살인미수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미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혐의(위증)로 J(5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7월 16일께 광주지법 법정에서 피고인 H(48)씨의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S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다른 수련원 회원인 B(43)씨를 “수련원 건물 관련 소송을 내는 등 우리 수련원 사람들을 괴롭혔다”며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J씨 등은 “H씨와 B씨를 포함한 14명이 식당에서 수련원 원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살인미수 자작극을 한 것처럼 꾸미기로 짜고 B씨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H씨는 실제 보복을 위해 다른 수련원 회원을 흉기로 찔렀는데도 J씨 등은 피해자이자 다른 수련원 회원인 B씨까지 모두 자작극을 꾸몄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H수련원 회원들 사이에 우상시 되는 원장이 불치병을 치료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를 감아넣어 판결을 뒤집자”고 회원끼리 대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은 “원장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했고, 마약 복용과 회원 간 단체 성관계도 했다”는 이 수련원 회원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수련원 사건이 일으킨 파문 등을 고려해 엽기행각이 사실인지, 조작된 것인지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토바이 2인조 현금 1억 강탈

서울 강남에서 22일 오전 은행 현금수송차량 보안요원들이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에게 현금 약 1억원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인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괴한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초구 잠원동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대기실 앞에서 A은행 현금지급기에 돈을 채우려던 보안업체 직원들한테서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보안요원 2명이 현금수송차를 주차하고서 차에서 내려 현금지급기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편에서 검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범인들이 돈가방을 탈취해 사평로 방향으로 도주했다. 현금수송차 운전기사는 “매일 오전마다 이 현금지급기에 돈을 채우러 왔다. 호송요원 2명이 각각 9천700만원과 4천만원이 든 가방 1개씩 들고 걸어가던 중 9천7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열쇠수리공 불러 오토바이 절도

광주북부경찰은 22일 열쇠 수리공을 불러내 남의 오토바이의 잠금장치를 푼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해 온 가출 여중생 김모(15)양 등 10대 3명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해 6월 5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둔 이모(여·24)씨의 50cc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도망가는 등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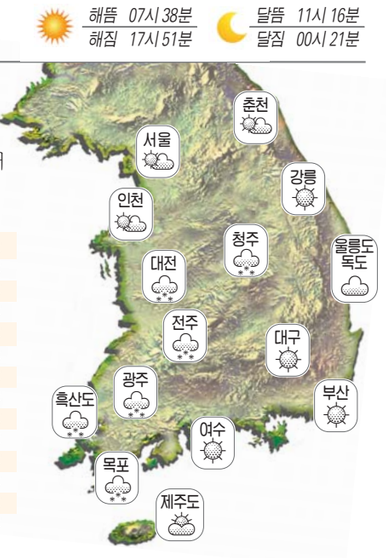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8분 / 해짐 17시 51분 / 달뜸 11시 16분 / 달짐 00시 21분

파고드는 칼바람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부터 개겠다.

광 주	흐리고 가끔 눈	-5/3℃
목 포	흐리고 가끔 눈	-3/2℃
여 수	맑음	-3/2℃
완 도	흐린뒤 맑음	-3/2℃
구 례	흐리고 가끔 눈	-5/3℃
해 남	흐리고 가끔 눈	-3/2℃
장 흥	흐리고 가끔 눈	-4/2℃
고 흥	흐리고 가끔 눈	-4/3℃
순 천	맑음	-3/4℃
영 광	흐리고 눈	-5/1℃
진 도	흐리고 눈	-3/2℃
전 주	흐리고 가끔 눈	-5/2℃
남 원	흐리고 가끔 눈	-6/1℃
흑산도	흐리고 가끔 눈	-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4.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6:54 / 18:58	12:02 / --:--
여수	01:36 / 13:25	07:23 / 20:0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날 씨						
최저/최고	-6/6	-2/5	-5/7	-1/9	2/9	-1/6

아이티 돕기 온정 광주시 서구 주민들이 22일 지진 참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티 난민들을 돕기 위해 농성동 구청사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 구호기금을 모금함에 넣고 있다. 서구는 이날 모은 기금 1천184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 서구지부에 전달했다. /김진수기자 jeans@

인사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M급 ▲동순천지점장 양상노 ▲북순천지점장 김성광 ▲순천중앙지점장 김충현 ▲신여수지점장 임병교 ▲동광주기업금융지점장 최명수 ▲강진군지부 이흥묵 ▲목포신안시군지부 이상현 ▲순천시지부 조덕훈 ▲여수시지부 문영홍 ▲영광군지부 임재성 ▲장성군지부 송관용 ▲함평군지부 최창수 ▲해남군지부 김귀남 ▲화순군지부 서한천

◇3급 ▲동명동지점장 안호성 ▲자유시장지점장 김양권 ▲벌교지점장 최영봉 ▲기획총무팀장 임창택 ▲농정홍보실장 최성열 ▲금융지원팀장 정용훈 ▲금융마케팅팀장 박안수 ▲상호금융보험팀장 박남석 ▲목포여신관리단장 한수길 ▲조합경영검사팀 김일수 ▲〃 박서홍 ▲〃 양혹룡 ▲〃 배용덕 ▲〃 박종욱 ▲동광주지점 정경찬 ▲고흥군지부 이오승 ▲〃 임삼세 ▲곡성군지부 이인환 ▲나주시지부 선규현 ▲담양군지부 김원일 ▲〃 조경섭 ▲목포신안시군지부 서정웅 ▲〃 조인종 ▲목포2호광장 김선윤 ▲신목포지점 신창기 ▲목포중앙지점 정경휘 ▲자유시장 김평대 ▲무안군지부 정병안 ▲〃 김몽기 ▲보성군지부 전관기 ▲순천시지부 손용철 ▲남순천지점 한혜란 ▲순천중앙지점 김대형 ▲여수시지부 김낙진 ▲〃 차경성 ▲신여수지점 장석용 ▲영암군지부 최양균 ▲〃 김영기 ▲완도군지부 노명하 ▲〃 박윤호 ▲장성군지부 김동성 ▲〃 강대선 ▲장흥군지부 윤평순 ▲〃 박기승 ▲함평군지부 진창주 ▲화순군지부 조건도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기획실장 이동우 ▲산업진흥실장 노성환 ▲광고국장 권영배 ▲검사역 장철진 ▲유통사업국장 기세민 ▲기금관리실장 백민수 ▲검사〃 정병철 ▲기획팀장 황호출 ▲경영지원〃 최대식 ▲재무회계〃 서인식 ▲기금운용〃 유재권 ▲지역신문〃 정문규 ▲연구〃 김영주 ▲조사분석〃 오수정 ▲산업지원〃 정 민 ▲읽기문화진흥〃 정봉근 ▲미래기술〃 허 영 ▲미디어정보〃 조동시 ▲매체전략〃 최지훈 ▲영업〃 장부영 ▲미디어교육〃 황치성 ▲인적역량강화〃 이종경 ▲대전사무소장 최광범 ▲대구〃 박기옥 ▲부산〃 김동필 ▲광주〃 윤현배 ▲유통지원팀장 이영욱 ▲자산품질관리〃 이문희 ▲공배〃 서종훈 ▲간행물사업〃 권선준

한눈 팔다 뻥튀기 뚜껑 “광”

쌍나팔

○…보성의 한 시골 장터에서 뻥튀기 기계가 폭발하는 바람에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70대 할머니 등 2명이 부상.

○…보성경찰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께 보성읍의 한 장터에서 최모(64·보성군 득량면)씨의 뻥튀기 기계 뚜껑이 터지는 바람에 손님 김모(75·여)·정모(60·여)씨가 얼굴과 왼쪽 허벅지를 다쳐 광주와 보성의 병원으로 각각 옮겨져 치료 중.

○…최씨는 경찰에서 “손님에게 뻥튀기 주문을 받은 뒤 김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뚜껑 여는 시간을 놓쳤다”고 진술.

○…경찰은 뻥튀기 기계가 과열돼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하면서 뚜껑이 부상자들을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